

Barakat Seoul is proud to host “The Absence of the Paterfamilias,” a duo exhibition of works by Cho Moon-Ki and Alex Verhaest. Though strangely similar, these two artists at the same time use entirely different media to shed a new light on the meaning of the family as a source of human conflict. Explorations of verbal and non-verbal violence and of the impossibility of dialogue, they together form intriguing variations on a theme.

In this exhibition, it is possible to contrast the two artists’ dissimilar methodologies as they approach portraits of the family that may be most truthful though strange. Using painting and interactive film, respectively, in the disparate culture spheres of South Korea and Belgium, these creators nevertheless are very similar in that they question the myth of the family and borrow symbolism from sacred paintings to explicate it. They both speak of contemporaries’ anxiety stemming from contradictions in the social system, with the family, the smallest unit of society, as the topic. Through this, the violence and severed communication rampant in the closest human relationships manifest themselves as negative emotions and situations such as conflict, anger, derision, and bewilderment.

Verhaest’s work, *Temps Mort/Idle Times* is based on a script that concretely depicts the circumstances immediately after the tragic event of a paterfamilias’ suicide. It consists of: *The Dinner*, which is a group portrait of a family including Angelo, the storyteller; *Character Studies*, which is a series of five individual portraits of members of this family; and five *Table Props*, which are still lifes. Thus constructed, *Temps Mort/Idle Times* sensitively captures the emotional agitation of the figures and reflects moments at which surviving family members are discomfited, unable to assume appropriate attitudes. Through a series of works from individual portraits to a family portrait, then to still lifes that are allegories of these figures’ inner worlds, the artist tenaciously delves into complex human psychology.

Cho’s works sensitively portray the ambiguous feelings of love/hate among family members. Depicting a fight over the inheritance at a funeral held to mourn a paterfamilias’ death, *The House of Mourning* raises the cynical idea that unconditional love among family members may only be a simple illusion. In Cho’s works, violence is simultaneously something exercised by a world that forces an individual to live as a member of a collective sharing a particular ideology and individuals’ reactionary resistance against a world of depersonalization. The artist’s pictorial techniques imbue the personages in his works with a ponderous, rocklike presence in contrast to Verhaest’s characters. Possessing solid textures, these figures are beings who have come to embody insensitivity

to violence. Personages who have been homogenized and only retain their materiality create the quietude characteristic of Cho's works. Replacing with them religious figures signifying love and miracles, the artist's works are like jeers at the forced ideology of familial love.

Thus classical and contemporary at once, the two artists' works prompt viewers to ponder on the family, a monolithic ideology, while adopting the authoritative forms of religious paintings. Just as they show that the system of the family, which exterminates subjects, is a continuously circulating existence, these creators' works return, in the end, not to portraits of individuals but to bizarre portraits of the family. Cho's figures, who are entangled cheek by jowl even though they wield violence, and Verhaest's figures, who maintain objective distance among themselves even though they are together, almost seem to wish and long for one another.

Just as the rigid iconography of classical holy paintings are revived in contemporary artists' works and continue the connection in "The Absence of the Paterfamilias," the exhibition implies that the desire to be united with others through communication and the desire to remain an independent subject constitute conflict that goes on beyond time. Is communication, which is impossible even among family members, or people who resemble one another the most and are the closest, at all possible to begin with? To what extent can we and others understand one another and become close? Yearning for independence as individuals in the wake of the disintegration of the family yet once again trapped in a single framework in the name of the family, figures in the two artists' works seem to ask what kinds of answers we may be able to find to the repeated conflict over boundaries between the self and others.

바라캣 서울은 작가 조문기와 알렉산드라 베르헤스트의 2인전 <기묘가족 奇妙家族 :가장의 부재 Absent of Paterfamilias>를 개최한다. 서로 이상하리만치 닮았으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른 매체를 통해 인간적 갈등의 근원으로서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두 작가의 작품에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폭력과 대화의 불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흥미로운 변주를 이룬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묘하지만 가장 진실된 모습일지 모를 가족의 초상에 접근하는 두 작가의 서로 다른 방식을 대조해 볼 수 있다. 한국과 벨기에라는 다른 문화권에서 각각 회화와 인터랙티브 영화라는 매체를 사용하는 두 작가는 가족의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 성화(聖畵)의 상징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두 작가 모두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을 소재로 사회 시스템의 모순에 기인하는 현대인의 불안에 대해 말한다. 이를 통해 가장 친밀한 인간 관계에 만연한 폭력과 소통의 단절은 갈등과 분노, 조소, 당황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드러난다.

베르헤스트의 작품 정지된 시간 *Temps Mort/Idle Times* 은 가장(家長, Paterfamilias)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의 직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대본을 바탕으로 한다. 스토리텔러인 안젤로를 포함한 가족의 공동 초상을 담은 저녁식사 *The Dinner* 와 이들의 개인 초상을 그린 다섯 개의 연작인 인물 연구 *Character Studies*, 정물화인 테이블 소품 *Table Prop* 으로 구성된 작품 정지된 시간은 등장인물 내면의 감정적인 동요를 섬세하게 포착하며 남은 유가족들이 적절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당황해 하는 순간을 담았다. 전시장에 비치된 번호로 관객이 전화를 걸었을 때 극중 인물이 전화를 받고 비로소 발화가 시작된다. 그러나 극중 인물들은 서로에게 반응하거나 말을 거는 대화가 아닌 그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한 혼잣말을 이어갈 뿐이다. 나와 타자의 관계를 실험하며, 공유되는 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이어가는 작가의 작품을 통해 가족 울타리 속의 개인의 소외는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된다. 개인의 초상에서 가족의 초상으로, 다시 이들 내면의 알레고리인 정물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품을 통해 작가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조문기의 작품은 가족 구성원간에 느껴지는 모호한 애증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가장의 죽음을 추모하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재산 다툼을 그린 **상주와 함께** *The house of mourning* 는 가족 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단순히 허상일지 모른다는 냉소적인 질문을 던진다. 서로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와 딸,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형제들의 모습은 기이하게도 무표정하거나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얼굴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가는 너무나 닮고 지나치게 가깝기에 서로를 미워할 수 밖에 없는 가족이란 이름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그의 작품에서 가장의 부재는 한 개인의 물리적 죽음을 의미하는 한편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아야 할

주체적인 자아가 부재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최소 단위의 사회인 가정은 모든 인간적 갈등의 원형을 제공하고 가장으로 대변되는 개인의 독립성이 억압을 받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이를 학습한 개인의 내적 모순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폭력은 한 개인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기를 강요하는 세계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며 동시에 물개성의 세계에 맞선 개인의 반동적 저항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폭력은 집단의 존속을 위한 불가피한 전제조건이며 무의미하게 순환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두 작가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어딘가 인간성을 결여하고 물성만 남은 듯한 인물을 그려낸다. 그러나 또한 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초월적 존재 같이 보이기도 한다. 베르헤스트의 작품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그림인 따블로 비방(Tableau vivant)으로 크라나흐(Cranach the Elder, Lucas)의 초상화와 피터 클라스(Pieter Claesz)의 정물화의 시각적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그는 존재의 덧없음과 허무의 감정을 담은 바니타스 정물화의 형식을 통해 상실에 뒤따르는 공허한 내면을 표현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금방이라도 어두운 배경 너머로 사라져버릴 유령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로써 그의 작품과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사라져가는 존재로서의 개인이 무의미하게 나열하는 말로 가득 차 있음이 암시된다. 조문기의 작품은 블라디미르의 성모(Владимирская Богоматер)와 같은 비잔틴 성화를 세속화한 이미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회화적 기법은 작품 속 인물들에게 베르헤스트의 인물과는 대조적인 바위와 같은 무거운 존재감을 부여한다. 단단하게 느껴지는 텍스처의 인물들은 폭력에 대한 무감각을 체화 한 존재이다. 물성만이 남은 채 동질화 된 인물들이 조문기 작품에 특유한 고요함을 만들어낸다. 이들에 의해 사랑과 기적을 의미하는 종교적 인물을 대체시키는 그의 작품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강제된 관념에 대한 조소와도 같다.

이렇듯 고전적이면서도 동시대적인 두 작가의 작품은 권위적 형식으로서의 종교화와 같은 모습을 한 채 거대한 이데올로기인 가족의 모습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주체를 소멸시키는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실존임을 보여주듯, 두 작가의 작품은 결국 개인의 초상이 아니라 기이한 가족의 초상으로 회귀한다.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서로 뒤엉켜 살을 맞대고 있는 조문기의 인물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베르헤스트의 인물들은 마치 서로의 모습을 염원하고 회귀하는 듯 보인다.

<기묘가족 奇妙家族: 가장의 부재>전에서 고전 성화의 경직된 도상이 현대 작가의 작품속에 되살아나 연결고리를 이어가듯이, 다른 이와 소통을 통해 통합하고자 하는 욕구와 독립된 주체로 남고자 하는 욕구는 시대를 넘어서 계속되는 갈등임을 암시하고 있다. 가장 닮았고 가까운 가족사이에도 불가능한 소통은 과연 애당초 가능한 것일까? 나와 타인은 어디까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가족의 해체에 따른 독립된 개인을 염원하면서도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갇힌 두 작가의 인물들은 나와 타인의 반복되는 경계의 갈등에 대해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질문하는 듯 하다.